

소논문 쓰기,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대학 학술적 글쓰기의 유의미한 한 유형으로서의 미완의 소논문 완성하기

최준호*

주제분류 글쓰기의 철학, 응용철학

주요어 학술적 글쓰기, 논문, 종합적 사고력,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미완의 소논문

요약문

본고의 목적은 대학 학술적 글쓰기 학습은 소논문작성하기를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글쓰기 수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미완의 소논문 완성하기’가 학술적 글쓰기 학습의 유용한 방안일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가 진행됐다. 첫째, 학술적 글쓰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학술적 글쓰기 학습의 중심에 놓여야 하는 글쓰기가 어떤 것인지를 논구했다. 둘째, 학술적 글쓰기에서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관련 자료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주장을 자신 있게 펼치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탐구했다. 셋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학술적 글쓰기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며, 그에 입각한 학습의 실효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적 글쓰기 학습은 소논문작성하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합적 사고력이며, 이는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유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력이다. 셋째, 열악한 학습 여건을 고려할 때, 미완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의 소논문작성하기는 대학 학술적 글쓰기 학습의 유의미한 한 방안이다. 넷째, 미완의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는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자신이 세운 통합적 틀 내에서 적절하게 위치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1. 들어가는 말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이라는 학술적 담화공동체로 순조롭게 진입(혹은 이행)할 수 있도록, 대학 글쓰기 교육이 ‘장르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차원에서도 구분되는 학술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주장 [원진숙(2005); 손동현(2006) 등]은 대학 글쓰기 교육에 관한 담론의 한 획을 그었다.¹⁾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를 어떤 추가적 언급 없이 주장하기는 어렵다. 학술적 담화공동체가 복수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학술적 글쓰기가 장르적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글쓰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공연계글쓰기(WAC)와 병행해서 학술적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원만희(2010); 배식한(2012); 송현주(2014) 등]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주로 미국에서 전개된 ‘학술적 글쓰기 논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간의 국내 대학 학술적 글쓰기 교육 및 담론을 성찰하고 있는 연구가 우리의 이목을 끈다. [정희모(2014); 이원빈(2012),(2014),(2015),(2016)] 거기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다른 연구의 경우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가 그간의 학술적 글쓰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완점을 언급 [이지양(2009); 김옥영(2011); 구자황(2013)등] 하는데 반해서, 전자는 사실상 학술적 글쓰기의 존립 의의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학술적 글쓰기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교육이 이뤄짐²⁾으로써, 쓸모없는 교육을 한 것은 아닌지³⁾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그간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맥락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 정희모(2014), 33쪽 참조

2) 이원빈(2016), 127,153쪽.

3) 정희모(2014), 44쪽.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씨름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 우선 다음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학술적 글쓰기의 공통적 요소(혹은 주된 요소)’와 ‘모든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정한 형식의 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존재하지 않아도, 후자는 존재한다. 후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적 글쓰기 교육이 공허하거나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학술연구논문(academic research paper, 이하 논문이라고 언급하는 경우 학술연구논문을 의미함)이 그런 글이다. 논문을 중심에 놓고 진행하는 학술적 글쓰기(논문에 상응하는 A4 5매 내외의 소논문작성하기)는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학술적 글쓰기가 어떤 글인가에 대한 혼란 [이윤빈(2012), (2016)]에서 벗어나서 학습에 임하게 해줄 수 있다. 둘째, 학술적 글쓰기의 실효성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전공글쓰기에 활용하는 데에만(전공글쓰기에 곧바로 활용하거나 전공글쓰기를 위한 준비단계로만 간주) 국한⁴⁾시킬 필요는 없다. 소위 말하는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하는 것이 학습자의 구체적 글쓰기 맥락에서 벗어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논문작성하기를 통해서 학습자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⁵⁾ 그리고 그렇게 터득한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요컨대 학술적 글쓰기의 구체적 형태와 관련해서는 전 학문 분야를 관통하는 특정한 글(논문)로 좁혀서 보고, 그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때, 대학 학술적 글쓰기 학습은 소논문작성하기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논문은 학문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학문을 지탱하는 근본요소이며 형식적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⁶⁾ 이런 논문작성

4) 정희모(2014), 40쪽.

5) 움베르토 에코(2012), 26쪽 참조.

에는 다면적·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경청하면서도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마련한 통일성의 원리’ 아래 적절하게 위치시키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또 세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서 그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함축돼 있다. 게다가 대학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대학 이후의 사회 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글쓰기(보고서, 제안서, 기안서, 비평문 등)의 가장 세련된 방법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본고는 유의미한 학술적 글쓰기의 한 가지 방안으로 ‘미완의 소논문 완성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논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현재 국내 대학 글쓰기 학습의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또 학습자가 학술적 글쓰기에 압도되지 않고 학습에 임할 수 있는 방안,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서 글을 쓰도록 하는 방안, 소논문작성을 학습자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키면서 글을 쓰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논자는 칸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력(reflective judgment)에 주목하고자 했다. 소논문작성하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의 본질적 특성을 (비록 유비적 관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칸트의 설명만큼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렵고 복잡한 논문작성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논문작성초보자인 학습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적절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고찰은 그러한 설명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칸트의 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소논문작성과 관련하여 논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종합적 사고력이 자의적인 것이 아

- 6) ① 글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힘. ② 관련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서 활용. ③ 글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

나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능력이라는 점도 분명해질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대학 학술적 글쓰기 학습은 소논문작성하기를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글쓰기 수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미완의 소논문 완성하기’가 그 학습의 유용한 방안일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적 글쓰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학술적 글쓰기 학습의 중심에 소논문작성하기가 놓여야 한다는 점을 논구한다. 둘째,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에서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시한다. 셋째, 학습자가 소논문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칸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력과 유비적 관계에 있는 종합적 사고력이며, 열악한 학습 여건 속에서 소논문작성 초보자에게 이 능력이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완의 소논문작성하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2. 학술적 글쓰기의 정의와 소논문작성하기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⁷⁾ 그럼에도 그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와 소통을 위해서 쓰여지는 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학술적 글쓰기는 학문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작성되는 글이며, 학문의 유지와 발전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는 설득력 있다. 학술적 글쓰기란 “**엄격하게 말하면**,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분야 혹은 학문분야에서 다른 학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쓰

7) 이와 관련해서는 원진숙(2005), 손동현(2006), 김옥영(2011), 이윤빈(2012), 박정하(2012), Hines(2004) 등을 참조할 것.

는 글이다. 생물학자가 쓴 관찰보고서, 언어학자가 쓴 해석적 에세이, 영화학자가 쓴 영화분석 등이 다 이에 속한다.”⁸⁾

문제는 그 외연이 넓다는 점이다. 이른바 경계설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학술적 글쓰기를 관통하는 문식성(literacy)을 끌어내거나 그 문식성에 기반한 특정 글쓰기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자면, 학술적 글쓰기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여러 글쓰기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도대체 학술적 글쓰기가 어떤 것인지?’라는 혼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이윤빈(2014), (2016)] 또 모든 학술적 글쓰기의 공통된 문식성을 인위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기초한 글쓰기를 학습할 경우, 그 글쓰기는 글쓰기 수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희모(2014); 이윤빈(2012), (2016)]

그런데 모든 학술적 글쓰기를 관통하는 문식성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공통적 형식의 글’은 존재하며, 그 글을 중심에 놓고 학술적 글쓰기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학습자가 ‘학술적 글쓰기가 도대체 어떤 글쓰기인가?’ 하는 혼란에서 벗어나서 교육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학술적 글쓰기 학습이 다른 글쓰기 학습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효용성을 지닌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정의를 보더라도, 학술적 글쓰기의 중심에 놓인 것은 논문이다. 위 정의에 따르면, 학술적인 글이란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다른 학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다. 어떤 학자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다른 학자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문제를 갖고 소통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 소통은 자신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론의장에서 소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 소통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

8) Greene, S., & Lindinsky, A. (2014), 1쪽.

은 논문을 작성해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다. 학술대회 등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배제될 수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나 우연히 알게 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 여하튼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물은 논문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학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논문은 학문을 지탱하는 근본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논문은 다른 글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글의 목적(주로 이것은 논문작성자의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다)이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2) ‘글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활용’하는 것에 기초해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탐구·조사·실험 등을 거쳐 글이 작성된다. 3) 글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작성돼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논문은 다른 글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논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구별되는 논문작성자의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다. 또 기존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수준의 논문이 없지는 않다. 여하튼 논문에는 글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서술된다. 결국 논문작성자의 고유한 새로운 주장을 체계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글이 좋은 논문이다.

그런데 논문작성자의 새로운 주장으로 가득 찬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기존 자료들의 검토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 이때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서 독자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다루는 지에 대한 목적이 결여된 것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학문 영역에 따라 논문의 구체적 형식들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론에서 논문의 목적과 방법을 각각 별도의 항

목으로 나뉘어서 작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 같은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논문은 없다. 관련자료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없다. 글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의 해결책을 출처가 분명한 관련 자료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형식으로 밝히는 글이 논문이며, 이것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다.

물론 이러한 기준점이 경계설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관련자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연과학의 경우, 새로운 실험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활용해서 논문이 작성돼야 한다는 점을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논문의 경우처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새로운 실험 결과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기존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자료가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⁹⁾ 더구나 수준 높은 논문을 작성하려면 기존 자료들과의 차이점이 직접적으로 언급돼야 한다.¹⁰⁾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오늘날 국제적 저명 학술지는 단순한 실험 결과만 담고 있는 논문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한다. 연구 주제의 시대적·사회적 함의 혹은 중요성을 잘 담고 있는 논문을 요구한다.¹¹⁾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결여돼서는 안 된다.

이처럼 논문은 오랜 시간의 조사, 연구, 탐구, 실험 등을 통해서 작성된 글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그 글이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학술논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술지

9) 움베르토 에코(2012), 134쪽 참조.

10) 김형순(2003), 58, 59, 61, 79, 85, 86쪽 참조.

11) 강석우 외(2009), 32-33쪽.

에 게재된 체계적인 글이다. 요컨대 논문은 기본적으로 논문 작성자의 새로운 주장을 조사, 연구, 탐구, 실험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돼서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글이며, 각 학문 분야의 특성 등에 따라서 강조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문이나 학술활동의 근간이 된다.

이런 까닭에 대학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중심에 ‘논문에 상응하는 소논문작성하기’가 놓여야 한다. 학문의 근간이 되는 글이 논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그 혼란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논문에 상응하는 소논문작성하기라 하더라도, 교수자나 학습여건에 따른 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관련자료는 어느 정도인가? 새로운 주장이나 생각은 어느 수준인가? 또 체계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 등) 그렇지만 어떤 개념 정의라 하더라도, 그 정의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실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논문에 상응하는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을 할 경우 교수자나 학습여건에 따른 소논문작성하기에 대한 상이한 표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학술적 글쓰기 학습이 소논문작성하기로 진행될 경우,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글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자료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학술적 글쓰기의 핵심이라는 점이 명확한 상태에서 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소논문작성하기와 종합적 사고력

여러 교수자의 지적처럼 다른 글쓰기보다 소논문작성을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다.¹²⁾ 이와 관련해 가장 난감한 문제는 학습자가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¹³⁾ 여하튼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에게 교수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는 학습자가 관련 자료의 내용에 압도돼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측면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자는 관련 자료와 구별되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라고 하면, 대부분 그것에 압도된다. 즉, 자료를 단순 발췌 혹은 요약하는 수준에 그친다. 다양한 자료는 ‘주제와 관련된 세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며 자신도 과감하게 자신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학습자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¹⁴⁾ 둘째, 자료 정리한 것과 자신의 생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의미 있는 하나의 통일된 세계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¹⁵⁾ 쉽게 말해서 관련 자료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전체 틀 속에 적절하게 위치지우지 못한다.

12) 최윤정(2012), 426-427쪽; 한수영(2010), 208-209쪽; 송선령(2012), 26-30쪽.

13) 이윤빈(2016), 144-146쪽; 구자황(2013), 85쪽.

14) 자연과학 논문은 ‘사실’을, 사회과학을 포함한 인문과학 논문은 ‘가치’를 다룬다고 얘기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과학 논문에서 다루지는 ‘사실’은 논문작성자의 가치관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성욱(2016)을 참조할 것.] 즉, 사실/가치의 이분법에 기초해서, ‘모든 학문의 공통된 글쓰기로서의 논문작성하기’는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확실성과 지속성에 차이가 있을 뿐,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논문은 결국 세상에 대한 논문작성자의 합리적인 ‘해석’이다.

15) 최윤정(2012)에 따르면 소논문작성 학습에서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기존의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과 구분되는 논문작성자 자신만의 독창적인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다. 한편 한수영은 소논문작성 학습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논문에 필요한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수영(2010), 202쪽] 이 역시 같은 얘기다. 즉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사를 관련 자료와 결합시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를 해결하는 것이다.¹⁶⁾ 전자의 부족함은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학습을 통해서 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자료들을 자신의 주장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제에 관한 하나의 통일된 세계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련 자료를 잘 요약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다. 혹은 실험 결과를 잘 정리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요약, 정리, 비판적 사고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각각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과학논문의 경우, 자신의 실험 결과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관련 자료들을 참조해서 충분히 고찰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험결과의 타당성과 의미 등을 유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요약, 정리, 비판 등이 개별적인 예술활동이라면, 논문작성은 종합예술활동이다.¹⁷⁾

이렇게 볼 때, 논문작성자는 ‘글 전체에 대한 구상’을 잘 세워져야 한다. 시쳇말로 글 전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글을 작성해야 한다.¹⁸⁾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하

16) 물론 이 두 가지 말고도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것이 더 있다. 예를 들면, 관련 자료를 검색했는데, 그 자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어떤 자료를 선택해야 할지 힘들어하는 것이다. 송선령(2012), 32쪽; 최준호(2016), 87쪽.

17) 논문작성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주제 선정, ②자료 수집 및 정리, ③개요 작성, ④집필, ⑤퇴고. 어떤 경우에는 ①을 [김정숙·백윤경(2014), 65쪽], 다른 어떤 경우에는 1)과 3)을 [최윤정(2012)],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2)를 강조한다. [정병기(2006), 102쪽; 최준호(2016), 73-74쪽] 그런데 논문작성 절차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를 강조하더라도, ‘기존 자료에 대한 정리’와 ‘자신만의 새로운 주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 물론 추론능력이 필요하다. 요약, 정리 등도 잘 해야 한다. 그러나 논문작성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은 단순히 추론 능력이나 요약·정리 능력, 혹은 비판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해서 그것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을 그 본래적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글 전체에 대한 자신의 구상’ 속에 유기적으로 배치시켜 의미 있는 하나의 통일된 세계상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논문의 경우 한번 짠 글 전체에 대한 구상이 수정 없이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다. 일필휘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논문이 작성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이런 까닭에 논문작성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은 반복되는 수정·보완을 동반하는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요컨대 그것은 ‘전체적인 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셀 수 없

18)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논문을 작성할 때, 논문작성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계획서가 필요하다. [정병기(2006), 102-121쪽] 거기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정리’와 ‘그것과 구별되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결합시켜 논문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 담긴다. 물론 이것은 논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코는 논문 작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논문 작성 마지막에 하게 되는 일, 즉 제목, 서문, 그리고 최종적인 차례를 쓰는 일이라고 말한다. 즉, 논문을 진행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일단 논문 시작단계에서 ‘논문 전체에 대한 정돈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코(2012), 137-146쪽.

19) 논문은 한 번에 완성되기 어려운 글임을 강조하면서, 몇 차례의 수정·보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과정(주제선정, 개요 작성 혹은 전체에 대한 구상 완료)이 끝나면 곧바로 초고 작성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서도 논문은 다른 글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미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초고는 논문의 일부가 아니라 논문 전체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강석우 외(2009), 231-247쪽.] 이에 따르면, 개요작성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236쪽) 또 초고를 쓰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242쪽) 시종 일관(예비단계, 집필단계, 수정단계) 강조되고 있는 것은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는 논문 전체가 논리적으로 잘 결합되게끔 사고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232, 241, 244쪽) 논자의 용어로 말하자면, 종합적 사고

는 수정을 통해 수백 개의 퍼즐조각들을 맞춰가면서 자기 스스로 전체상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퍼즐게임에서 요구되는 사고력과 유사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일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소논문이 잘 작성되려면, 소논문작성자는 다양한 자료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을 경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청한 것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틀 내에 적절하게 위치시켜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자료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 사고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습자가 ‘관련 자료는 그것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해석이며, 자신도 그 해석자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는 것이다.

4. 소논문작성하기와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앞서 우리는 논문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것은 칸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력에 가깝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유비적 관계에 있는 사고력이다.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은 어떤 규정적인 원리(원칙 혹은 법칙)가 주어지지 않은 채 자신 앞에 놓인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을 통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자 스스로 원리를 마련한 뒤 그 원리에 입각해서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통일적 판단을 수행하는 사고력이기 때문이다.

력을 통해서 이질적인 복잡한 요소들을 통일적으로 잘 결합시켜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논자는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에서 학습자가 이같은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의 조건에 상응하는 조치(상황별 혹은 수준별 논문작성 학습의 방안을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여건에 따라서, ‘일부가 미리 맞춰져 있는 상태의 퍼즐조각 맞추기’와 같은 소논문작성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점을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 위해서라도 칸트가 반성적 판단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 원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논문작성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과 칸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유비적 관계가 더 명확해질 것이며, 논문작성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의 함의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칸트의 글귀부터 살펴보자.

“판단력 일반은 특수를 보편 아래에 포함된 것으로서 사유하는 능력이다. 보편(규칙, 원칙, 법칙)이 주어져 있는 경우, 특수를 그 보편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은 (판단력이 선험적 판단력으로서 이 보편에의 포섭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만을 경험 독립적으로(a priori) 지시할 경우에도) 규정적이다. 그러나 특수만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특수에 대하여 보편을 찾아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은 단지 반성적이다.”
(KU., XXV-XXVI)

칸트는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으로 나눈다. 그 기준은 판단의 원칙이나 원리가 주어져 있느냐의 여부다. 규정적 판단력이 발휘되는 경우는 원칙이 주어져 있을 때다. 물을 불에 올려 놓고 30분을 끓였는데 물이 끓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때 왜 물이 끓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상정해보자. 우리는 물의 온도가 100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법칙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반성적 판단력은 그런 원칙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

료들만 있고 레시피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요리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레시피를 구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다양한 재료들을 잘 결합시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칸트는 경험적 차원의 반성적 판단력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려는 게 아니다. 그의 관심은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향해 있다. 더구나 그는 그것을 다른 비판서(『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의 논의와 결합시켜 ‘인식능력들(지성, 이성,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들’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KU., 「서론」 III절 참조) 그렇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그의 해명을 몇 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칸트의 언급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다. 그의 견해를 왜곡시키지 않는 한에서, 우리의 관심과 연결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족하다. 그 연결고리는 칸트가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Zweckmäßigkeit der Natur)을 자연에 대한 탐구상황(이른바 과학적 탐구방법)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 연결고리가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① ‘복잡하고 이질적인 다양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해 줄 수 있는 원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자 스스로 그 원리를 마련해서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어 통일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사고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칸트의 논의와 우리의 논의가 하나로 모아진다. ② 차이점은 칸트의 논의가 선험적 차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의 합목적성에 관해서 칸트가 언급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차원이 다른 두 논의의 접점이 보인다. 그가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는 경험적 차원의 현상들과 관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 그 선험적 원리에 상응하는 경험적 격률(Maxime)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즉,

그가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반성적 판단력’과 (논문작성의) ‘종합적 사고력’이 유비관계에 놓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을 탐구하는 상황과 연관지어 ‘자연의 합목적성’이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은 『판단력비판』 「서론」(주로 IV, V절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부분에 집중돼 있다. 여기서는 그 핵심만 추려 언급하고자 한다. 자연 현상을 연구할 때, 그 현상이 복잡하고 이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져서 그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처하더라도,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원칙이나 법칙 아래 통일적으로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해야만 한다.(KU., XXXVI 참조) 마치 자연 전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나 한 것처럼(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이 하나의 통일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²¹⁾하고, (연구자가 연구하는 현상들도 그 체계에 잘 조응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원리나 법칙들을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서 마련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다.(KU., §68, B 308 참조.)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 전체가 목적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 법칙들에 의거해서 새로운 경험법칙이나 개념들을 획득하기 위한 이른바 과학적 탐구를 할 때, 자연

20) “자연은 최단 경로를 취한다(절약의 법칙); 자연은 연속되는 변화 속에서도, 또 종별적으로 상이한 여러 형식의 병존에서도 결코 비약을 하지 않는다(자연에서의 연속의 법칙); 경험적 법칙에서의 자연은 대단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은 소수의 원칙하에 통일되어 있다.(필요한 것 이외의 원칙은 증가하지 않는다.)”(KU., XXXI)

21) 칸트에 따르면, 이때의 “자연은 이 (합목적성의) 개념에 의해서, 마치 어떤 한 지성이 다양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을 통일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표상된다.”(KU., XXVIII)

의 합목적성이라는 통일의 원리를 상징하고 그에 입각해서 탐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²²⁾ 칸트가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를 “발견의 원리”(ein heuristisches Prinzip)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 때문이다.(KU., §78, B 355) 즉,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을 탐구할 때, 너무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어떤 통일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자연 현상들과 마주하더라도, ‘자연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룬다’는 원리를 상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원리를 연구자 스스로 마련해서 그 다양한 현상들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칸트가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연구자 스스로 구체적 원리를 마련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 그리고 그 수정과 보완을 위한 성찰의 과정²³⁾이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내용은 논문작성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을 떠올리게 한다. 칸트가 반성적 판단력과 그것의 선험적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을 논문작성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적 판단력과 그것의 선험적 원리는 논문작성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 및 그것의 원리와 유비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22) 여기서 과학적 탐구의 모델은 뉴턴 물리학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Butts, R. E.(1992:88)를 참조할 것.

23) 칸트는 이를 “반성” 개념으로 총괄해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칸트 철학에서 ‘반성’ 개념만큼 하나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개념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판단력비판』에서 등장하는 반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탐구의 상황에서, (자연의 합목적성과 연관지어) 구체적인 경험적 법칙과 개념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어진 표상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을 참조할 것. 최준호(2000), 26-35쪽]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성활동은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24)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의 적용을 미의 판단(숭고의 판단), 유기체 판단, 자연 전체의 판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치의 영역(아렌트)으로 [강지은(2010)], 법의 영역(사비니)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논문작성자가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이 질서정연한 지식체계를 향해 가고 있으며 자신이 작성하는 논문내용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식체계에 상응할 것이라고 상정하면서, (자료들에 대한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자신의 연구내용을 통일적으로 드러내줄 원리를 스스로 마련해서 그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설령 연구자가 참조하는 자료의 내용들이 상반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자신의 연구결과가 기존의 것과 상반된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지식체계를 부정한다면 근본적으로 그 학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논문작성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의 발휘와 칸트가 말하는 자연의 탐구상황에서 요구되는 반성적 판단력의 작용은 유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글쓰기를 하는 경우, 어떤 특정한 양식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특징에 양식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반성적 판단력과 유비적 관계에 있는 사고력’이 발휘된다. ‘글 전체의 상’에 대한 원칙이 미리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글쓴이 스스로 하나의 원리를 마련해서 그 원리 아래 글 전체를 통일적으로 묶어내야 한다. 글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목차를 짠 뒤, 그에 따라 글을 통일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글의 구성이 ‘여러 이질적으로까지 보이는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동시에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한 복잡한 사고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고력의 발휘가 쉽지 않다. 논문작성하기가 그렇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논문은 다양한 자료들을 잘 정리·분석한 뒤, 논문작성자 자신의 고유한 주장을 그 정리·분석한 것들과 유기적으로 결

으로 [남기운(2017)] 확장 가능하다. 논문작성과정에도 적용가능하다. 다만 칸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비적 관계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합시켜서,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통일된 세계상’을 제시한 글이다. 그것도 수정과 반복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유비적 관계에 있는 사고력의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글쓰기가 논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충분한 훈육을 통해 발휘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칸트로 돌아가 보자. 판단력의 발휘와 훈련에 대한 칸트의 언급은 그만의 특별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논문작성과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 칸트는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것은 타고나는 재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단력의 향상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단력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개선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²⁵⁾ 그리고 그것은 지난한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종합적 사고력의 배양과 그에 상응하는 소논문작성 능력의 뚜렷한 향상은 기본적으로 힘겨운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허락되지 않지만 종합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글쓰기를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의 당위는 윤리적 당위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방도가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종합적 사고력의 향상을 가능케 할 어떤 특별한 묘약이 있는 것도 아니

25) 판단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는 칸트의 언급은 그의 저서(『순수이성비판』,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도덕형이상학의 정초』 등)에서 파편적으로 확인된다. 이를 보면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성은 규칙들을 통해서 배우고 보강할 수 있지만 판단력은 특수한 기지(Witz)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숙련될 수 있을 뿐이다”(KrV, B 172쪽)

며, 그렇다고 훈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종합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글쓰기의 향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상황에 맞는 방안에 기초한 훈육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논자가 제안하는 것은 학습의 여건과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규정적 요소가 가미된 방안, 즉 미완의 소논문완성하기이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언급될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먼저 논문작성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력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고력인지 명확해졌다. 다음으로 그러한 사고력을 발휘하는 것은 논문작성에서만 요구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유비적 관계에 놓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이른바 탐구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사고력의 향상은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으며,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훈련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5. 미완의 소논문 완성하기

앞서 확인했듯이, 소논문작성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유비적 관계에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그러한 사고력에 입각해서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이 잘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①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은 해결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은 채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하지만, 그 다양한 의견들을 자기 스스로 마련한 종합의 원리 내에 적절하게 위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축하

고 있다.²⁶⁾ ②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은 학습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시사한다. 즉, 아무리 뛰어난 권위를 지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관련 텍스트의 저자)도 세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사람이며, 학습자 자신도 그런 합리적 해석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²⁷⁾ ③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은 그것을 잘 하게 되면, 자료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다양한 글쓰기(대학 및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보고서들, 제안서, 기안서, 비평문 등)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물론 여기서 말한 것들이 단 한 번의 소논문작성하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또 모든 학습자에게 전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 소논문작성하기를 통해서 종합적 사고력을 충분히 배양시켰다고 해서, 합리적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때나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또 다른 글쓰기를 할 때 그렇게 배양시킨 능력이 곧바로 발휘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논문을 잘 쓰는 것은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나 문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다른 글쓰기를 잘 하는 것과 별개일 수 있다.

그 실효성이 드러나는 것은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나 합리적으로 소통

26) 요즘 우리 모두는 한 전문가의 시각이나 지식만 갖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요컨대 인문학적 관점과 자연과학적 관점의 융합적 사고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홍성욱(2016), 135-142쪽] 이러한 능력의 함양과 관련하여 논문작성하기 훈련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자 교양교육을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포스텍의 경우)가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민(2012)을 참조할 것.

27) 예코는 이를 “학문적 겸손”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훌륭한 생각이 유명한 저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코(2012), 169쪽] “누구든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줄 수 있다.”(170쪽)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주장이든지 겸손하게 들어야 하며, 그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71쪽)

해야 할 때, 또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를 해야 할 때, 자신이 소논문작성하기에서 수행했던 절차와 방법을 떠올려보는 것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 다양한 자료들과 자신이 어떻게 대면했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 속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시켜 문제해결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재인식과 그에 상응하는 절차의 수행이, 자신이 처한 문제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리고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써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²⁸⁾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니는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을 하기 위한 국내 대학 글쓰기 교육의 여건은 어떠한가? 구체적인 여건은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자 및 교수자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무방하다.²⁹⁾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을 바람직한 조건에서 시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에 맞는 교수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논자는 학습여건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규정적 요소가 가미된 소논문작성 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미완의 소논문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 정리의 일부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추론된 생각, 더 나아가서 그 추론에 바탕을 둔 글의 일부 등을 제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학습자가 작성하게 하는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을 말한다. 일부가 미리 작성된 소논문제시를 통해서, 자료정리, 추론, 자기 주장의 논증, 자료의 출처

28) 논문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테마가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방법과 절차를 익히는 것이며, ‘극단적으로 말해서 논문작성은 기억력의 훈련’이라는 에코의 주장의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코(2012), 26-27쪽.

29) 김정숙(2014), 45-55쪽; 조미숙(2014), 277-293쪽; 이재현(2015), 226-227쪽 참조.

제시 방법, 자료정리와 자기생각의 유기적 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한 것인가 등을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완의 소논문을 완성하는 학습을 하자는 것이다.

이때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가?’, 또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등은 학습의 여건과 학습자의 역량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어떤 경우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논자는 생각한다. ① 학습자가 관련 자료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의 수준을 적절한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도 학술적 글쓰기의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관련 자료여야 한다. ② 주제가 학습자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구체적 삶과 학술적 글쓰기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견주어보면서, 소논문작성하기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 자신의 구체적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학습자의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소논문의 결론은 열려져 있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의 소논문을 (논문을 평가하는 항목에 상응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³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미완의 소논문 완성하기는 어떤 자료를 단순히 요약·정리하거나 그 요약·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서 논증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글쓰기 훈련이다. 전자가 일면적인 학술적 글쓰기 훈련이라면, 미완의 소논문작성하기는 다면적·다층적인 훈련이다. ‘전자의 훈련’과 ‘다양한 자료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과 글쓴이 자신만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체계적인 글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전자(이를 테면 논증하기)를 잘 수행한 것이 ‘내용과 형식이 잘 갖춰진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자의 훈련과는 별개로 소논문작성하기 훈련을 해야

30) 이러한 평가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김남미(2009)를 참조할 것.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일부가 주어진 상태에서 하는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물론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요약하기, 논증하기 등에 대한 일정 시간의 학습은 불가결한 것이다.

국내 대학 글쓰기 수업의 여건을 볼 때 여기서 제시한 소논문작성하기는 매우 유의미한 학습 방안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학습 기간과 적절치 않은 학급당 인원 때문에 그렇다. 달리 말해서 미완의 소논문작성하기는 주당 3시간 15주(혹은 16주) 동안 학술적 글쓰기를 다른 글쓰기(자기소개서 쓰기, 체험적 글쓰기, PT를 위한 글쓰기, 디지털 글쓰기 등)와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유의미한 학술적 글쓰기 학습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논문작성하기는 물론이고,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업에 임하는 학습자의 수준을 볼 때도 그렇다. 게다가 글쓰기 수업을 그 실효성에만 집중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³¹⁾, 무엇보다도 교수가 강의평가 등에 의해 제약받으면서, 이른바 재미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하는 조건을 고려해 볼 때도 그렇다. 즉, 여기서 제안하는 방안은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을 실행할 업무를 내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글쓰기 교육이 이뤄지는 국내 대학의 전반적 여건을 고려한 유의미한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³²⁾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서 제시된 방안은 소논문작성하기가 넘을 수 없는 영역에 놓인 글쓰기가 아니라는 점도 학습자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

31) 학생들은 글쓰기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기초과정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김옥영(2011), 57쪽.

32) 본고의 방안은 글쓰기 학습 여건에 따라서는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니다. 국내 대학의 글쓰기 수업의 열악한 여건 전반을 고려해서 작성된 것이다. 글쓰기 수업에서 수준별 학습의 필요와 관련해서는 조윤정(2016)을, 논문작성 학습에서 수준별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경우로는 송선령(2010)을 참조할 것.

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술적 글쓰기에 임하는 학습자가 이른바 ‘저자성’(authorship)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³³⁾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서 글쓰기에 임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부가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말이 정해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논문의 문제의식이 학습자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사고하게 해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요컨대 논자가 제시한 방안은 글쓰기 교육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학술적 글쓰기 학습을 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술적 글쓰기의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서 그 의미와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 학습에 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³⁴⁾

6. 맺음말

우리는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의미 있는 학술적 글쓰기의 한 가지 방안을 살펴봤다. 일부가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된 역사적 유물의 나머지 부분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고고학적 혹은 역사적 작업과 유사한 방식의 소논문작성하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좀 더 풍부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에 관한 논의도 살펴봤다.

물론 문제는 남는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미완의 소논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모든 전공의 학생들에게 만족할만한 소논문작성의 예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리석

33) 이윤빈(2016), 144쪽; 구자황(2013), 85쪽.

34) 이와 같은 함의를 지닌 ‘미완의 소논문 작성하기’의 한 가지 사례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대학글쓰기 교재 편찬위원회(2017), 266-296쪽.

은 일에 도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른바 경계설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나 다 동의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나 교수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시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습 여건 및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제안된 의미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소논문작성하기 학습의 의의를 충분하게 습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던질 수도 있다. 즉, 여기서 제시된 방안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학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며, 그런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서 소논문작성하기 훈련에 담긴 의미를 학습자들이 충분하게 체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문제들이 여기서 제시된 방안을 통해서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예상 가능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지금 여기서 만족스럽게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논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고자 할 뿐이다. 첫째, 대학 학술적 글쓰기의 중심에 소논문작성 학습이 놓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학술적 글쓰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나서 학술적 글 쓰기 수업에 임할 수 있다. 둘째, 소논문작성 학습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칸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력과 유비관계 있는 ‘학습자의 종합적 사고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대학 교육 현실을 고려했을 때, 소논문작성 학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규정적 요소가 가미된(논문의 일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소논문을 작성케 하는 학습(미완의 소논문 작성하기 학습)이 필요하다.

결국 본고는 대학 학술적 글쓰기 학습이 학습자에게 덜 혼란을 야기시키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를 제안하는 차원의 글이다. 그리고 이점에 동의한다면 소논문작성의 구체적인 예는

학습여건 및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제시되는 예가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 논문의 의의는 결코 작다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해 학습 여건과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미완의 소논문 작성하기 학습이 시도되고, 그렇게 시도되는 것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본 논문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참고문헌

- 강석우 외(2009), 『대학생을 위한 과학글쓰기』, 아카넷.
- 강지은(2010),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의사소통의 가능성」, 『시대와 철학』 21(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구자황(2013), 「학술적 담화공동체의 삶과 글쓰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 김남미(2009),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동료 평가 결과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0, 한민족문화학회.
- 김옥영(2011),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어문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 김정민(2012), 「이공계대학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인문통합교과 모형에 관한 연구— 포스텍의 ‘인문학의 세계와 비판적 사고’ 강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5, 국제어문학회.
- 김정숙(2014), 「대학 글쓰기 교과목의 운영 현황과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김정숙·백윤경(2014),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의 실제」, 『인문학연구』 96,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김형순(2003), 『논문 10%만 고쳐써라: 체계적이고 정교한 과학논문 작성법』, YAS Media.
- 남기윤(2017), 「사비나의 법적 판단력과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고려법학』 8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대학 글쓰기 교재 편찬위원회, 『신입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주)로직인, 2017.
- 박정하(2012), 「학술적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고와 표현』 5(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배식한(2012), 「전공연계글쓰기(WAC)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 『교양교육연구』 6(3), 한국교양교육학회.
- 손동현(2006), 「교양교육으로서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 『철학논총』 43(1), 새한철학회.
- 송선령(2010), 「<우리말과 글쓰기>교재 중 ‘구성의 단계’ 고찰」, 『이화어문논집』 28, 이화어문학회.
- 송현주(2014),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국제언어문학』 30, 국제언어문학회.
- 움베르토 에코, 『논문 잘 쓰는 방법』,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2007.
- 원만희(2010),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 『수사학』 13, 한국수사학회.
- 원진숙(2005),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작문교육 방법」,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 이윤빈(2012), 「대학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 _____(2014), 「미국 대학 신입생 글쓰기(FYC) 교육의 새로운 방안 모색」, 『작문연구』 21, 한국작문학회.
- _____(2015),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및 대안적 교육방안 검토」, 『작문연구』 24, 한국작문학회.
- _____(2016),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규정 및 대학생의 인식양상」, 『작문연구』 31, 한국작문학회.
- 이재현(2015), 「글쓰기 관련 수업의 구성과 개선 방향에 관하여」, 『사고와 표현』 8(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정병기(2006), 『사회과학 글쓰기: 대학생을 위한 논문 작성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희모(2014), 「대학작문 교육과 학술적 글쓰기의 특성」, 『작문연구』 21, 한국작문학회.

- 조미숙(2016), 「대학 기초 글쓰기 현황과 개선 방안」, 『동남어문논집』 42, 동남어문학회.
- 조운정(2016), 「이공계 글쓰기 교육에서 쓰기 능력의 평가와 수준별 교육의 효과」, 『인문논총』 73(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최윤정(2012), 「대학생 소논문 작성 지도 사례 연구」, 『어문연구』 4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최준호(2000), 「칸트의 반성적 판단과 목적론적 세계」,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_____(2016), 「‘논문작성 과정의 순환성 인식’과 ‘선행연구 검토’의 중요성」,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1),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한수영(2010), 「대학글쓰기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방법과 성과」, 『대학작문』 1, 대학작문학회.
- 홍성욱(2016),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본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안과 밖』 41, 영미문학연구회.
- Butts, R. E.(1992), “Teleology and Scientific Method in Kant’s Critique of Judgement”, in: *Immanuel Kant: Critical Assesment*, ed Ruth F. Chadwick and Clive Cazeauk, London and New York, 1992.
- Greene, S., & Lindinsky, A.(2014), *From Inquiry to Academic Writing*. Macmillan Higher Education.
- Hines, E.(2004), *High Quality and Low Quality College-Level Academic Writing*,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Kant, I.(1936), *Kant’s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Writing a Research Essay, Synthetic Thinking and
Kant's Reflective Judgment :
Complete Writing an Unfinished Research Essay as a Relevant
Type of Academic Writing Courses in Korean Universities**

Choi, Jun Ho (Kyonggi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the academic writing courses in Korean universities should be centered on writing a research essay and the complete writing of an unfinished research essay could be a useful method of the courses in poor learning condit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our inquiries have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methods : First of all, looking at the definition of academic writing, we sought to find out what kind of writing should be at the center of academic writing courses. Secondly, looking straight at the fact that the most difficulty for learners in academic writing courses is not to argue their own new ideas confidently, we sought to solve this problem. Finally, we searched for a concrete solution to conduct the meaningful academic writing courses in poor learning conditions.

Depending on the above procedures and methods, the results of our inquiries are as follows: ① Academic writing courses should be focused on complete writing an unfinished research essay, which allows learners to learn how to write the so-called academic writing. ② The most important for learners to fulfill complete writing the unfinished research essay is the synthetic thinking, which is the analogic thinking of Kant's reflective judgment and accordingly human being's natural one. ③ In

light of poor learning conditions, complete writing an unfinished research essay is a significant method of learning an academic writing.

④ In addition, doing complete writing an unfinished research essay, learners learn how to rationally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in the world, how to improve their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by positioning them appropriately within the integrated framework, and how to skillfully do any writing with utilizing some related materials.

Key words: Academic Writing, Academic Research Paper, Synthetic Thinking, Kant's Reflective Judgment, an Unfinished Research Essay

최준호 e-mail: contramony@hanmail.net

투 고 일	2017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17년 10월 30일
게재확정	2017년 11월 13일